

“파란 일으키겠다” “판 뒤집겠다”... 줄이은 출사표

민주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둘째날 이낙연·박용진·김두관·이광재 등록

단일화 선언 정세균·이광재 봉하마을 동행 권양숙 여사 환담

반이재명 ‘지지율 연대’ 한계 정책·비전·공약 대결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 둘째날인 29일,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김두관·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경선의 출발점부터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구도가 분명해지며 치열한 경쟁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나 비전을 중심으로 찬반 연대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히 지지율 1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연대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선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디며 가슴이 떨리고 벅차오른다”며 “힘겨운 국민과 청년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 4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겠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자신이 민주당 정부의 적통자임을 내세웠다.

“정년 바람”을 타고 있는 박용진 의원도 이날 후보 등록을 하며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으며, 김두관 의원은 “개혁 비전과 정책으로 판을 뒤집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광재 의원은 “실용적 진보, 유능한 진보의 길을 확실히 개척,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후보 등록 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한중중재터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1위 후보를 견제하고 예비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예비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정세

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지난 28일 단일화 선언 이후 본격적인 공동행보에 나섰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봉하마을을 나란히 찾아가 (故)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환담했다. 참여정부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단일화 행보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친노를 출발점으로 친문 중심의 연대전선을 펴겠다는 뜻으로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정 전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컷 오프 통과 후보가 6명이라 한 명이 과반을 차지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결선투표로 갈 것이고, 내가 결선투표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출판기념회에 집결해 주목된다. 지방 일정 소화를 위해 서울을 비운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을 제외한 비이재명 주자들이 모두 모인 셈이다. 최 지사는 그간 경선 일정부터 기본소득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뜻을 함께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 이재명 연대가 곧바로 구체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예비 경선이 마무리되고 본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미애 전 장관과 박용진, 김두관 의원 등은 후보단일화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지율 2위인 자신을 중심으로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기 위한 후보들 간의 연대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셈법의 후보단일화 연대, 네거티브로는 역전을 견인할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적공감을 이끌고 감동한 정책 및 공약 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비 경선이 끝나고 본 경선에 들어가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각종 정책 등을 놓고 후보 지지자들의 견제와 도전이 본격화되면서 연대와 단일화 등을 매개로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순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앞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순사건 73년 한 풀리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진상규명·명예회복 ‘첫 걸음’ 희생자 생활지원금 등 지급

지난 73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의 한을 풀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

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 및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특별법은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묘역과 위령탑, 여수·순천 10·19 사건 사료관, 위령공원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평화와 인권 교육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의 시기에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수많은 민간인이 군·경의 진압 작전이나 일부 좌익 세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됐지만, 반반이 이념 대립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법안의 성안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소병철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한 몫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행안위에서 주관한 입법공청회도 개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여순사건을 다루자는 입장을 보이며 법안이 진척되지 못하는 고비를 겪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73년의 피맺힌 한, 20년 동안 국회에서 8번의 법안 통과가 무산된 좌절을 오늘 로써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긴 세월 건너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선후보 선거비 1인 513억원까지 사용 가능

15% 이상 득표면 전액 보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으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내년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4.5%를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권위는 산정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3억1500만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여순특별법안 국회 통과 환영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후속 대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73년이 지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남도, 여주시, 순천시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족과 도민의 73년 염원이 결실을 맺어 감격스럽다”며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힘써준 소병철·주철현·김희재·서동용·김승남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으로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

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던 가슴 아픈 사건으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매년 문턱을 넘지 못해 아픔은 쌓이고 쌓였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많은 이들의 열연 덕분에 아픈 상처를 치유 위한 역사적 실마리가 마련됐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서둘러 진상조사가 이뤄져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또한 합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